

# 環境破壞와 有機農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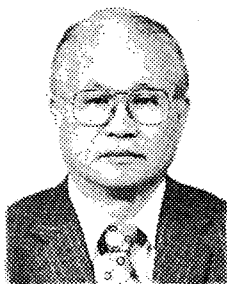
현대문명의 발달과 함께 모든 일들이 오직 눈앞의 편의만을 추구하여 오면서, 그 성과에 스스로 도취되어 기술적인 개발을 더욱 가속화 시키다보니 태고 이래로 우리를 감싸주며 번영과 생명을 보장해 주던 대자연이 각종의 공해에 시달리며 극심한 몸살을 앓게 되어버렸다.

사람은 흙에서 나와 흙에서 자란 농산물을 먹으며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다가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만고에 통하는 평범한 진리이다.

그러나 이말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무릇 지구상 일체생물의 건강은 보잘것없어 보이거나 이세상 무엇보다도 위대한 힘을 가지고 묵묵히 일해 주고 있는 흙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되돌이켜 볼 때 지금까지 우리가 흙을 “생명의 모체”로서 과연 소중하게 다루어 왔는가 하는 것을 깊이 반성하여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인간의 지혜가 번득이면서 농업에도 무조건적인 다수확만을 꾀하게 되어, 우리나라의 경우 1961년 이래로 화학비료를 남용하게 되면서부터 수천년간 중성을 유지하여오던 흙이 갑작

용되는 것으로서, 무릇 지구상 일체생물의 건강은 보잘것없어 보이거나 이세상 무엇보다도 위대한 힘을 가지고 묵묵히 일해 주고 있는 흙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되돌이켜 볼 때 지금까지 우리가 흙을 “생명의 모체”로서 과연 소중하게 다루어 왔는가 하는 것을 깊이 반성하여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柳達永 / 1911年 서울生. 수원고 등농림학교와 미국 미네소타대학 대학원卒業했다. 1946년부터 '76년까지 서울대教授로 재직했다. 대한가족협회장, 재건국민운동중앙회장, 한국향토개발운동초대이사장, 국제가족계획연맹 이사, 전국재해대책협의회 회장,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총재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한국유기농업 환경연구회 會長.



「무공해 쌀포장」에서 작황을 살펴 기록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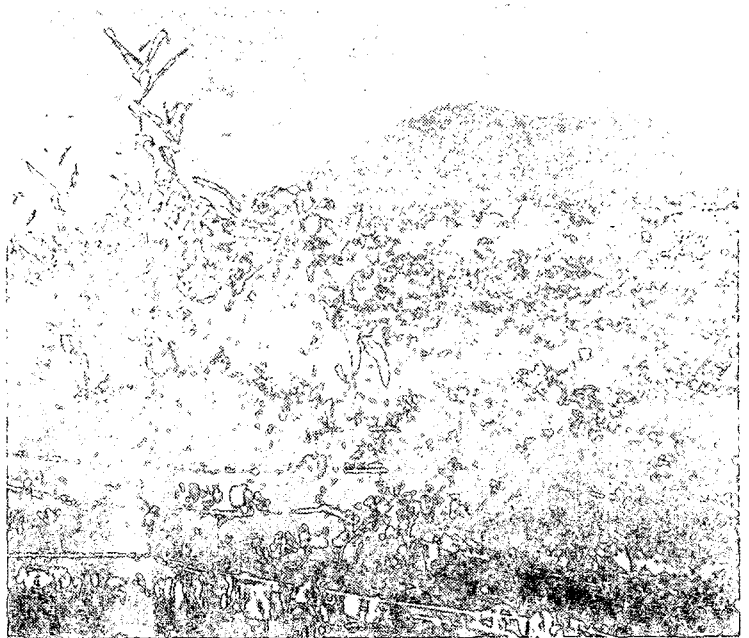
66

화학비료를  
남용하게 되면서부터  
수천년간 중성을 유지하여오던  
흙이 갑작스럽게 죽어  
가고 있다

99

스럽게 산성화되고 죽어가면서 그속에 뿌리를 내리고 영양분을 흡수하고있는 농작물들이 또한 산성화되며, 그것을 먹는 인간의 체질 역시 산성으로 변하여, 자연과 농작물은 물론 인류에게도 수많은 질병과 해충이 만연되면서 고통속에 신음하고 있는것을 바로 우리들의 눈앞에서 지켜보게 되어버렸다.

이렇듯 토양과 작물의 산성화에 따라 빈발하는 질병을 퇴치하고자 무작정 뿌려대는 고통성 농약이 병해충의 저항성 내병성을 유발시켜 오히려 병해충은 매년 키워나가면서 토양과 하천 및 각종 농작물에 남아있는 잔류독성으로 자연의 곤충이나 노동물의 기형화 또는 멸종현상이 나타나고 인간에게는 소위 “4대 현대병”이라고 일컬어지는 암·고혈압·당뇨병·심장병등이 전체사망원인의 49.5%를 차지하고 있을뿐 아니라 어린애들에게 까지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가공할만한 결과를 초래하면서, 수원에 있는 서호(西湖)나 신갈호, 아산호등 크고 작은 호수들은 물론 해양에까지 화학비료와 농



관행농법의 고추밭은 역병·탄저병등으로 완전히 죽어간 반면 유기농업을 적용한 고추밭은 잎하나 떨어지지않고 건재한 모습

약이 흘러들어 수질의 부영양화 현상(富營養化現狀)으로 물이 썩으면서 물고기들이 폐죽음을 당하는 모습들이 빈번히 눈에 띄고 있다.

화학비료와 농약을 비교적 적게 사용하던 지난 75년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태어난후에 소아마비로 불구가 되는 경우는 더러 있었지만, 태어나면서 부터의 기형아는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은 기형아의 출산율이 날로 증가하여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산부인과의 통계에 의하면 '75~'85년의 10년간 평균이 5.3%에 이르게 되고 최근에는 연간 10%에 이르는 무서운 결과를 목격하게 된 것이다.

이와같이 흙이 건강을 잃어 가게되면 약간의 시차를 들뿐이지 동·식물과 사람들도 따

“  
 무릇 지구상 일체 생물의 건강은  
 보잘것없어 보이나 이세상 무엇보다도  
 위대한 힘을 가지고 묵묵히 일해주고 있는  
 흙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

라서 병들어 가기때문에 “흙과 사람의 육신은 둘이 아니라 하나(身土不二)라고 보면서 대접을 잘해주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연의 원리에 순응하는 농법이 바로 유기농업(有機農業)이다.

유기농업을 철저히 실천함으로써 흙의 생명력을 극대화시켜, 영양분의 균형을 이룬 튼튼한 농작물의 증산을 기하고 그러한 건강농산물을 먹는 인간 역시 태

어나면서부터 부여받은 건강과 120세까지의 천수를 다할수있게 되는 것이다.

지구상에서 가장 자연이 오염되지 않고 1백세 이상의 건강장수를 누리고사는 세계 3대 장수촌인 소련의 코카사스 공화국·파키스탄의 훈자왕국·남미의 빌카밤바지역이 세계인류 영양학자들의 연구결과로 나타난 큰 공통점은, 우선 화학비료와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

으면서 발효퇴비 위주로 생산한 유기농산물을 가공하지 않은 자연상태로 익혀먹고, 규칙적으로 많은 노동을 하며, 육식(肉食)과 과음·과식을 하지 않는다는 3가지였다고 한다.

이렇듯 우리의 건강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공기·물·흙등 자연환경의 구성요소들이 먼저 건강해야, 그들을 지배하는 인간 역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볼때, 우리나라의 농업도 하루속히 유기농업으로 완전한 변신을 이룩하여야 되겠고, 국민들 또한 깊은 관심으로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할것이다.

다행히 우리나라에도 10여년 전부터 토양과 수질오염에 따른 자연생태계 파괴의 심각성을 경고하며, 화학비료와 농약을 줄이고 유기농법에 의한 유효미생물과 발효퇴비로 흙과 자연을 되살리며 건강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국민의 건강을 바르게 지켜나가는 농민들의 자생적인 단체가 생겨났고, 뜻을 함께 하는 소비자 그룹과는 유기농산물의 직거래도 시작하고 있어 우리 국토와 국민의 장래가 그렇게 어둡지만은 않다고 하겠다. \*



위와같은 발효퇴비를 다량제조하여 비맞지 않도록 보호해두고 논·밭에 적당량을 사용해갈때 화학비료·농약과는 자연히 멀어질 수 있게 되는것이다.